

**LOLYA PASTORAL STAFF**

Executive Director

—Pastor Jae Lee

Director

—Pastor Rachel Lee

Program Directors

—Pastor David Kim

—Pastor Joseph Lee

문의: 각교회 사역자 또는

레이첼 전도사

714-293-2293

**참여 교회**

가나안 장로교회, 벨플라워  
갈보리 장로교회, 부에나팍  
가디나 장로교회, 가디나  
새생명 오아시스교회, 엘에이  
복음 장로교회, 라하브라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산타아나  
생명의 샘 선교교회, 세리토스  
아름다운 언덕 교회, 놀웁크  
대흥 장로교회, 가디나  
진리의 빛 교회, 두산 아리조나  
즐거움 커뮤니티 교회, 샌디에고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하나교회, 부에나 팍  
한국 커뮤니티 교회, 부에나 팍  
성시교회, 부에나 팍  
성광 장로교회, 엘에이  
디사이플 커뮤니티, 얼바인  
선한목자 장로교회, 로렌하이츠

**이벤트 pre- rally**

수양회 전 찬양집회

12/5/2015 저녁 6시

하나교회, 부에나팍

강사: 김 빌리 전도사

(사랑의 교회 영어 대학부)

찬양: 김 마이클 전도사

(디사이플 교회 중고등부)

\*겨울 수양회 강사와 찬양 인도자

중고등부 학부모님,

벌써 겨울 수양회가 금방 다가 오네요. Live Out Loud Youth Alliance (LOLYA, 로야)에서 지난 일년간 사역자 스텝들이 2015 겨울 수양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부터 각교회 리더들이 2주에 한번씩 만나서 다양한 훈련과 또 아이들에게 그들의 열정을 보여 줄수 있는 연극과 바디워킹을 준비 중 입니다. 매해 새롭게 늘 성장하고 있으며 저희 사역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 많은 중고등부가 모일 수 있는 이번 겨울을 주셨습니다. 올해 18 교회에서 작게는 5명 많게는 60명 정도 참여하여 400-440 정도를 예상 하고 있습니다. 19명의 사역자들과 50 여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합니다. 숫자가 많아져도 오랜 중고등부 사역으로 아이들의 본질을 잘 아는 저희들은 컨퍼런스 형식이 아닌 수양회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합니다.

프로그램은 1. 다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2. 두그룹 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세미나, 3. 한 그룹에 7명의 넘지 않는 소그룹별 모임, 4. 소그룹 두팀이 한팀을 이루어 런닝맨 형식으로 진행되는 도전 게임, 7개의 스테이션에서 다양한 팀빌딩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게임, 5. 소그룹 두팀이 한팀을 이루어 만드는 연극. 내용을 통해 어떤것을 아이들이 수양회에서 배우고 깨달았는지 알수 있으며 아이들의 창의성은 늘 즐거운 공연입니다.

예배 강사는 김 빌리 전도사님 (사랑의 교회 영어 대학부)

세미나는 이 준 목사님 (의의 나무 사역/오병이어 식당/YWAM)

찬양은 김 마이클 전도사님 (디사이플 커뮤니티 중고등부)

장소: Camp Ceder Crest, Running springs / Dates: 12/27-12/30 2015

올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누가복음 9:23 말씀을 중심으로 멈추어서 은혜만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역동적인 제자의 멋진 삶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주려 합니다. 그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 혼자가는 길이 아님을 아이들이 알기를 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먼저 그 삶을 살아오고 있는 선배 그리스도인이준 목사님의 오병이어식당 (5bread2fish.org) 사역을 통해 하루에 2000명의 홈리스를 먹이고, 남아서 오지 못하는 지역에 배달까지 하고 있는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통해 직접 들으며 제자의 삶의 감동과 도전을 받을 것 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도 아이들과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며 서로 이해 하지 못함으로 서로에게 상처 입히기도 할 것입니다. 다양의 형태의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기도 할 것이며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키우고자 애쓰고 있으시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부모님도 있을 줄 압니다. 잘 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역시도 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LOLYA 수양회는 영적전쟁을 선포하는 의미로 battleground (전쟁터)라고 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수양회를 통해 다시한번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 합니다. 기도 합시다. 같이 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때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으로 아이들과 함께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2015년 11월, 로야 디렉터, 레이첼 전도사